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7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 주중 예배 안내 : 7월 1일(수) 월축복예배 - 윤성민 전도사
7월 2일(목) 새벽예배 - 기쁨의 언덕 설교 영상

• 7월 월삭(월축복) 예배

- * 일시: 7월 1일(수) / 장소: 대예배실
- * 7월 가정별 기도카드(월삭헌금부투)는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정성껏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니카라과 단기선교 파송식

- * 일시 : 6월 28일(주일) 오전 8시(1부)
- * 단기선교팀 명단 : 고태영, 권태홍, 김 경, 김민음, 김희범, 박영희, 박인숙, 심성애, 양우경, 이정석 (이상 10명)
- * 선교일정 : 일시 6월 29일(월) ~ 7월 3일(금)

• 캐주얼 시즌 (7~10월) 복장 안내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복장을 유연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 [여름철 친교(주일 1부 및 주일 2부) 사역 안내]

여름철인 7~8월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행 및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 준비와 봉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일 친교(주일 1부 및 2부) 사역을 잠시 쉬고자 합니다.

대신 예배 후에는 가족과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이어가시며 지역 식당과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응원하고 함께 상생하는 뜻 깊은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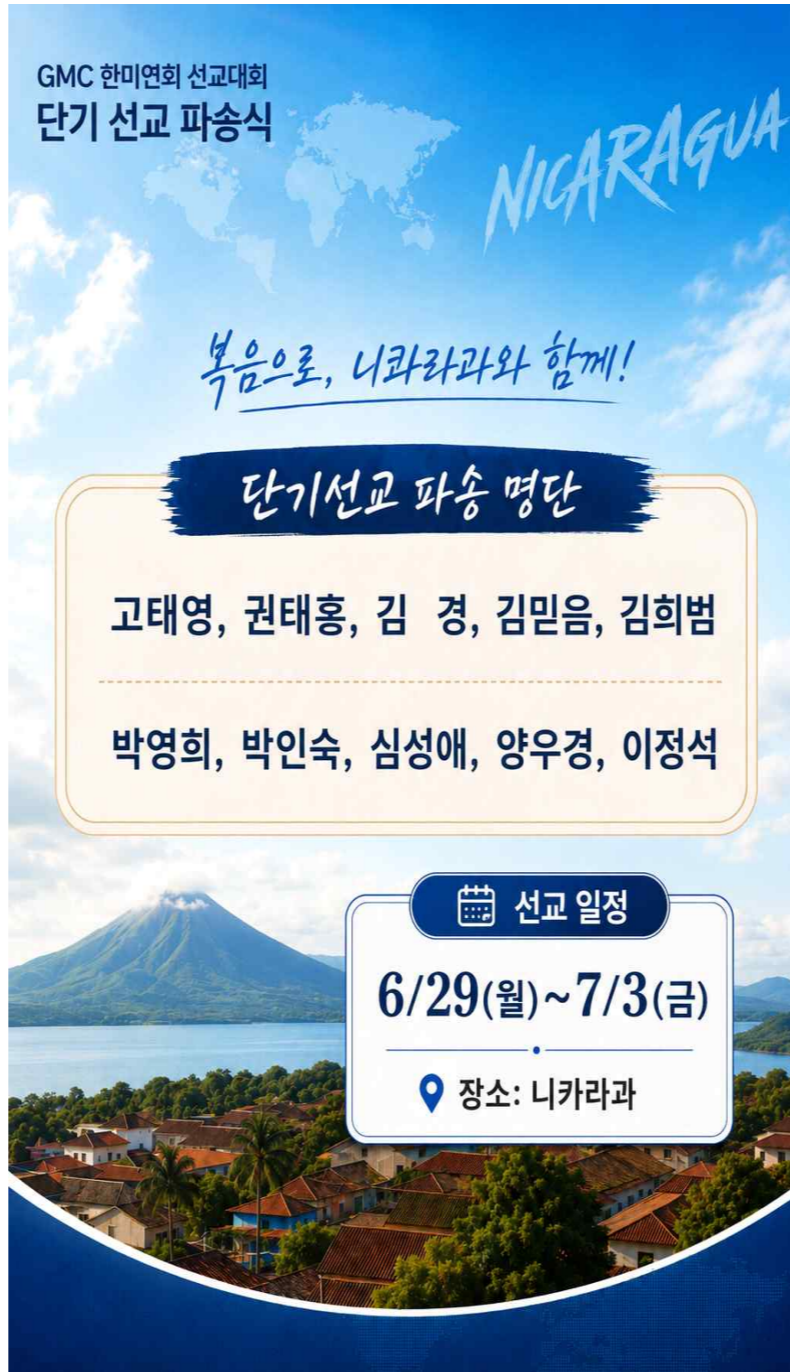
잠시 친교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는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9월부터는 다시 즐거운 친교의 자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목회후원 사역팀 -

• 교우 동정

[이주] 황흥섭/황영순 권사님 가정이 앨러바마주(Huntsville, Alabama)로 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GMC 한미연회 선교대회
단기 선교 파송식

NICARAGUA

복음으로, 니카라과와 함께!

단기선교 파송 명단

고태영, 권태홍, 김 경, 김민음, 김희범

박영희, 박인숙, 심성애, 양우경, 이정석

📅 선교 일정
6/29(월)~7/3(금)

📍 장소: 니카라과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 P. the Poor in Spirit*
- O. Oneness in Lord's Hand*
- E. Encouragement in Christ*
-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 성령강림후 다섯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250장(통18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기도 Prayer / 이현숙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내 마음의 노래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롬(Rom) 5:1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기도 Prayer / 김세희 권사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내 마음의 노래 -


< 성령의 열매 (3)- 화평 > Fruit of the Holy Spirit (3)- Peace

▲ 파송찬송 Closing Hymn/ **충만**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6월/7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6월 28일	1부	물댄동산 목장	담당자	이현숙권사	Unity목장
	2부			김세희권사	
다음주 7월 5일	1부	열매목장	담당자	노효영권사	
	2부			구자현장로	

설교요약

우리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통해 사랑과 희락에 이어 오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을 함께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라고 말씀하며, 화평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화롭고 평안한 상태,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바르게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는 당시 전쟁이 없는 상태, 사회 질서와 안정, 공동체의 조화를 뜻했지만, 로마 시대의 평화(Pax Romana)는 강압과 권력으로 유지된 외적인 질서였을 뿐 참된 내면의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음의 불안과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가며, 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었고, 인간은 그로 인해 참된 안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평안을 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체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화평은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상대가 변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으로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평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뀐 후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품으셨고,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닮은 결단입니다.

화평은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설교 요약>



화평은 단순히 다투지 않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말과 오해이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작은 이해와 용서, 배려와 기도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옳다” 보다 “함께 가야 한다” 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으로 드러나며,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 안에 먼저 화평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채우고, 그 평안이 말과 태도와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웃어 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려는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성령의 화평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나눔 질문 >

- 1) 이번 설교를 통해 “화평” 이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점에서 새롭게 깨달아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2) 내가 최근에 경험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실제로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서로 나눠보세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마음에 변화를 주었나요?
- 3)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미소 짓거나, 이해하거나, 손 내밀었던 작은 화평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고, 그때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이야기에 봅시다.
- 4)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먼저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내 인간관계에 어떤 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세요.
- 5)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사람” 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금주 애찬 섬김

	금주 (6월 28일)		다음주 (7월 5일)
	김정주집사		
	범사감사		
	Unity목장		